

SK, 하나 · 신한 · 산업은행과 돈독

소버린 경영참여 철회에도 지분 계속보유 ... 신용카드 합작설립 추진

SK의 2대 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참여 철회와 관련해 SK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세력으로 나섰던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은 소버린이 SK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보유지분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개 은행은 소버린자산운용과 SK그룹이 SK의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2003년 12월말 SK 지분을 1.72-1.88%씩 매입해 SK그룹을 지지하는 백기사 역할을 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SK 지분 1.88%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은 일부를 매각해 1.63%와 0.56%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21일 SK 지분을 매입한 것은 백기사 역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소버린이 경영권 참여를 포기하더라도 지분을 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두 은행은 SK텔레콤을 끌어들여 신용카드회사를 합작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산업은행도 백기사 역할은 끝났지만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 현재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개 은행의 SK 지분 매입단가는 주당 3만-4만원대로 현재의 주가(5만4000원) 수준에서 30-80% 평가이익을 보고 있다.

한편, SK는 2003년과 200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 및 관련기업들의 측면지원 등에 힘입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현재 주주 구성은 SK C&C 외 특수관계인이 15.5%로 최대주주이고 은행권 외에 국민연금(3.1%), 우리사주(1.3%) 등이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버린은 14.8%로 2대주주이며 웰링턴과 푸르덴셜 등 소버린을 제외한 외국투자자들이 4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6/23>